

『협회 43년사(창립1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李喜平)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에 63빌딩 별관 3층 체리홀에서 유관기관 귀빈 및 협회 전·현직 임원·지회장·운영위원 및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43년사(창립10년사) 출판기념회」 행사를 가졌다.

협회의 모태였던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의 43년 역사와 1996년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법정단체로 재탄생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0년의 역사를 수록한 「협회43년사

(창립10년사)」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그 동안 전력기술발전과 전력기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흔적과 협회가 성장·발전해 온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희평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의 지난 43년이 전력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력기술인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고 계승하는





「전력기술문화창달」에 중점을 두어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고용제도」 및 「전기설계·감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연구 및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여 전기에 대한 안전의식을 널리 전파함은 물론,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 등 전기를 다루는 전력기술인에게는 전력기술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협회와 회원 모두가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이 발간되는 협회 43년사는 그동안의 협회의 변천과정,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전기관련 법·제도의 변천과정, 협회 사업과 지회 역사를 비롯하여 협회 화보집 등 총 86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사이후 전기관련기관·단체를 비롯한 전국 21개 지회의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 출판기념회에는 박찬모(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과 이동훈 부위원장(前 산업자원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축전 ▶▶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0년사(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창립이후 43년사)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서 전력기술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긍지를 드높이는 뜻 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 협회 10년사 출판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검찰총우회 회장(前 법무부 장관) 김 중 구